

월간 SW 산업 동향

2013. 2월호



• Package Software • IT Service • Embedded Software • Open Source Software

I . Summary	1
II. 월간통계	4
1. SW산업 생산액 및 수출액	5
2. SW산업 관련 통계	6
III. 국내외 정책 동향	12
1. 국내	13
2. 해외	19
IV. SW 시장 및 기술 동향	23
1. 부문별 시장 동향	24
2. SW 기업동향	35
V. 주요 리포트	43
1. 글로벌 전통기업의 「디지털 체험」 전략	44
2. 스마트 커머스(Smart Commerce) 보고서	49
VI. 월간 SW 이슈 분석	60
1. 3D 프린팅, 3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주역	61
2. 소셜 분석 시장의 발전	66

I . Summary



◆ 월간 통계

- (KRG) 2013년 국내 기업용 IT 시장 전년 대비 2.8% 성장, 19조7천 500억 원 규모 전망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12년 DB산업 규모는 전년대비 6% 성장한 11조64억 원으로 조사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년 IT트렌드를 이끌 핵심 키워드로 빅데이터 · 클라우드 · 소셜네트워크서비스 · 보안 순으로 조사됨
- (IDC) 국내 클라우드 서버 시장, 2017년까지 연평균 27%의 높은 성장세 전망
- (스탯카운터) 윈도우7이 출시 3년 만에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국내 운영체제(OS) 시장 점유율 1위를 확보
- (플러리) 중국,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스마트폰·패드 시장으로 등극

◆ SW산업 국내외 정책

- (지식경제부) 2013년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계획 공고, '분리발주 대상 SW 고시' 개정, '수출 제품 완성도 체크리스트' 발표
- (행정안전부) 'SOS 국민안심 서비스'의 2년간 성과를 다룬 백서를 발간
- (방송통신위원회) 2012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발표, 스마트폰 악성코드 예방 조치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SW 사용실태 점검 결과 발표, SW 불법 복제 단속 강화 및 예방활동 전개
- (국방부) 국방 부문에서 모두 2조 원가량의 국방 정보화 사업이 추진, 국산SW 유지보수비용 현실화
- (미국) 오바마 2기 행정부, 경제 재건책의 핵심 방편으로 IT산업 부흥을 냄, 미 국방부 모바일 오피스 2014년 2월 가동, 미국, 주요 신기술 IT프로젝트에 민간 기업가와 혁신가들을 적극 참여시켜 높은 성과를 도모하는 대통령 산하의 '혁신 펠로우 프로그램(Presidential Innovation Fellows Program)' 2기 전문가 모집
- (EU) 사이버 보안 전략 및 지침 발표

◆ SW 시장 및 기술 동향

- (패키지SW) 국산 DBMS 업체들, 올해 국내 DB시장에서 10% 점유율을 목표로 함, 보안업계, 공공 통합보안 대응 분주, (가트너) 국내 BI SW 시장 규모 1천9억 원으로 전망
- (IT서비스) 중견 IT서비스기업, 공공사업 인력 채용에 실행조직 확대에 초점, 중견 IT서비스 기업, 수익 중심으로 사업과 조직을 재편하는데 주력, 그룹 계열 중소 IT서비스 기업, 대학정보화 시장 진출, 중견 SW기업들, 공공 정보화 시장을 적극 공략 나섬
- (신사업) 포털업계, 모바일 검색을 강화, 기업 내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구축이 증가, 국내 검색업계, '빅데이터'를 적용한 신제품 출시

◆ 주요 리포트

- 「글로벌 전통 기업의 '디지털 체험' 전략」, 삼성경제연구소('13. 2)
 - 제품의 품질과 성능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상품을 소비하는 과정에서의 즐거움이나 성취감, 즉 체험이 핵심 차별화 요소로 떠오르고 있음
- 「스마트 커머스(Smart Commerce보고서)」, KT경제경영연구소('13. 2)
 - 스마트 기기를 통한 인터넷 이용의 대중화,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은 커머스 서비스를 확장시키는 계기를 마련

◆ 월간 SW 이슈 분석

< 3D 프린팅 3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주역 >

- 3D프린팅이 제조 산업 분야에 불러올 변화는 기업들의 혁신 가속화, 글로벌 물류 산업의 변화, 제조-도매-소매업의 관계 붕괴 등으로 전망

< 소셜 분석 시장의 발전 >

- 소셜 미디어가 활용의 도구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진화하면서, 소셜 분석 시장이 점차 발전해 가는 추세

II. 월간통계



1. SW산업 생산액 및 수출액

□ SW산업 1월 생산액 및 수출액 통계자료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KEA) 사정에 의해 4월 SW산업 월간동향부터 제공

월별 SW 생산액 추이(단위: 억 원) *생산액 수치는 잠정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간 합계
패키지 SW	2012년	3,003	3,273	3,853	3,151	3,325	3,757	3,262	3,122	3,263	3,290	3,359	4,984	41,642
	2011년	2,668	2,769	3,163	2,915	2,851	3,211	3,147	2,964	3,109	2,979	3,158	4,528	37,463
	증감	12.5%	18.2%	21.8%	8.1%	16.6%	17.0%	3.6%	5.3%	4.9%	10.4%	6.3%	10.1%	10.0%
IT 서비스	2012년	18,660	19,104	20,621	19,999	20,998	24,138	22,042	21,089	23,337	21,298	23,070	35,545	269,902
	2011년	17,334	17,949	20,789	19,022	20,675	21,911	19,961	19,785	21,978	20,365	22,546	31,770	254,086
	증감	7.6%	6.4%	-0.8%	5.1%	1.5%	10.2%	10.4%	6.6%	6.2%	4.6%	2.3%	11.9%	5.9%
합계	2012년	21,663	22,378	24,474	23,150	24,323	27,896	25,303	24,210	26,601	24,588	26,428	40,529	311,545
	2011년	20,002	20,718	23,952	21,938	23,526	25,122	23,109	22,750	25,087	23,345	25,704	36,298	291,549
	증감	8.3%	8.0%	2.2%	5.5%	3.3%	11.0%	9.5%	6.4%	6.0%	5.3%	2.8%	11.7%	6.4%

※ 생산액 수치는 잠정치

자료: KEA(2013. 1)

월별 SW 수출액 추이(단위: 천 달러) *수출액 수치는 잠정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간 합계
패키지 SW	2012년	20,220	21,817	25,824	26,505	45,568	66,174	75,704	84,032	91,667	111,481	121,016	122,405	815,865
	2011년	21,268	19,118	28,813	20,614	22,535	34,716	25,842	25,524	30,464	27,346	33,763	39,878	329,881
	증감	-4.9%	14.1%	-10.4%	28.6%	102.2%	90.6%	192.9%	229.2%	200.9%	307.7%	258.4%	206.9%	59.6%
IT 서비스	2012년	77,183	79,643	96,418	121,334	151,916	118,413	98,039	114,965	76,461	104,466	146,920	196,332	1,425,541
	2011년	73,115	72,381	91,267	88,603	85,983	84,449	80,921	92,827	57,949	100,338	100,772	133,327	1,095,506
	증감	5.6%	10.0%	5.6%	36.9%	76.7%	40.2%	21.2%	23.8%	31.9%	4.1%	45.8%	47.3%	23.2%
합계	2012년	97,403	101,460	122,242	147,839	197,484	184,587	173,743	198,997	213,293	215,947	267,936	318,737	2,241,406
	2011년	94,383	91,499	120,080	109,217	108,518	119,165	106,763	118,351	121,987	127,684	134,535	173,205	1,425,387
	증감	3.2%	10.9%	1.8%	35.4%	82.0%	54.9%	62.7%	68.1%	74.9%	69.1%	99.2%	84.0%	36.4%

※ 수출액 수치는 잠정치

자료: KEA(2013. 1)

2. SW산업 관련 통계

가. 국내 기업용 IT 시장 전망

- 2013년 국내 기업용 IT 시장 전년 대비 2.8% 성장, 19조7천500억원 규모 전망
 - (KRG) 2013년 기업 IT 투자는 전반적으로 보수적일 것으로 예측
 - 2012년 국내 IT시장은 전반적인 저 성장기조 속에 19조2천150억 원을 기록
 - 경기 침체 지속과 대기업의 IT투자 증가폭 제한으로 2013년도 전반적인 성장 둔화가 전망됨
 - SW, 솔루션 분야는 2012년 대비 3.8% 성장한 3조4천880억원에 달해 전체 시장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
 - 2013년 SW, 솔루션 시장은 ERP 시스템 고도화, 모바일 보안을 포함한 정보보호, 그룹웨어, BI 등이 시장을 주도하며 신규투자 보다는 재구축, 업그레이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 IT 서비스 시장은 전년대비 3.2% 성장한 10조9천990억원 규모로 전체 IT시장의 55.7%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

국내 IT 시장 전망 2011~2013



자료: KRG (2013. 2. 27)

나. 국내 DB산업 시장 전망

- 2012년 DB산업 규모는 전년대비 6% 성장한 11조64억원으로 조사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DB 구축시장을 비롯, DB컨설팅·솔루션, DB서비스 시장 등 모든 분야에서 전년대비 성장 기록
 - 성장의 주요 요인은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한 기업의 신규수요 증가, 스마트 기반 모바일서비스 확산 등으로 분석
 - 대용량 데이터를 수용하기 위한 사회 전반의 투자 증가로 DB 구축시장은 전년대비 6.5% 성장한 4조5120억원을 기록
 - DB컨설팅·솔루션 시장은 빅데이터 기술이 접목되면서 전년대비 10.2% 성장한 2조98억원으로 조사
 - DBMS 분야는 전년대비 22% 늘어난 5210억원의 규모를 차지, DB 컨설팅·솔루션 시장 성장을 견인
 - 모바일 기반 DB서비스는 지난해 DB서비스 시장의 6.3%를 차지 하면서 전년대비 10.3% 증가
 -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해 전 산업에서의 DB산업 기술 수요는 급격 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

국내 DB산업 시장 규모 및 전망(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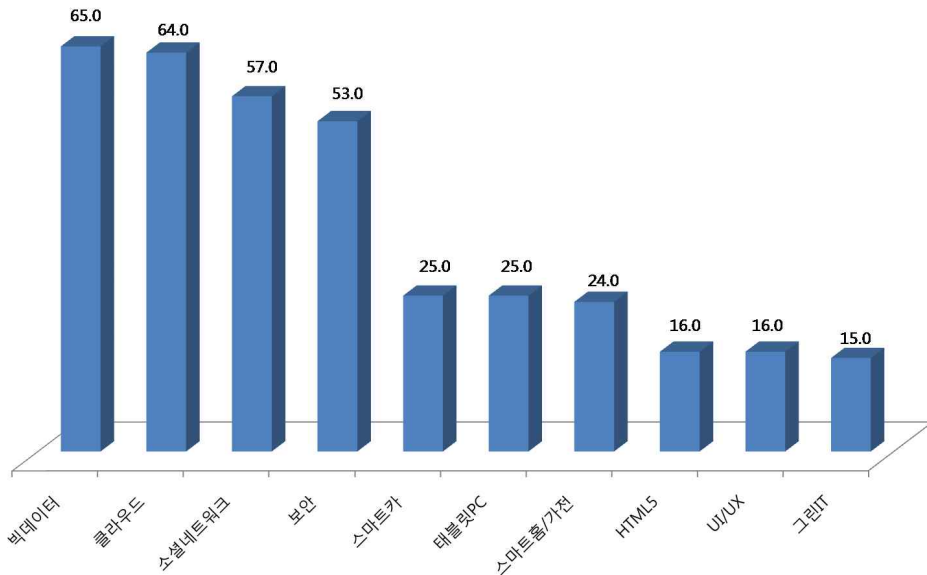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규모	110,064	116,596	122,931	191,025

자료: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13. 2. 13)

다. 국내 2013 국가정보화 트렌드 전망

- 2013년 빅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비즈니스 발굴'에 IT업계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년 IT트렌드를 이끌 핵심 키워드로 빅데이터
 - 클라우드 · 소셜네트워크서비스 · 보안 순으로 조사됨
 - 2012년은 '빅데이터에 관한 개념 확산', 2013년은 '빅데이터 분석'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
 - 빅데이터가 클라우드와 연계돼 시너지를 형성할 것이며, 개인보다는 기업 중심의 B2B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예상
 - 모바일기기 및 서비스의 확산으로 데이터 폭증이 불가피해 '빅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예측
 -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는 이슈로는 빅데이터, 보안, 그린IT, 클라우드, 스마트헬스IT 등 순으로 조사

2012년 10대 IT트렌드 전망 결과(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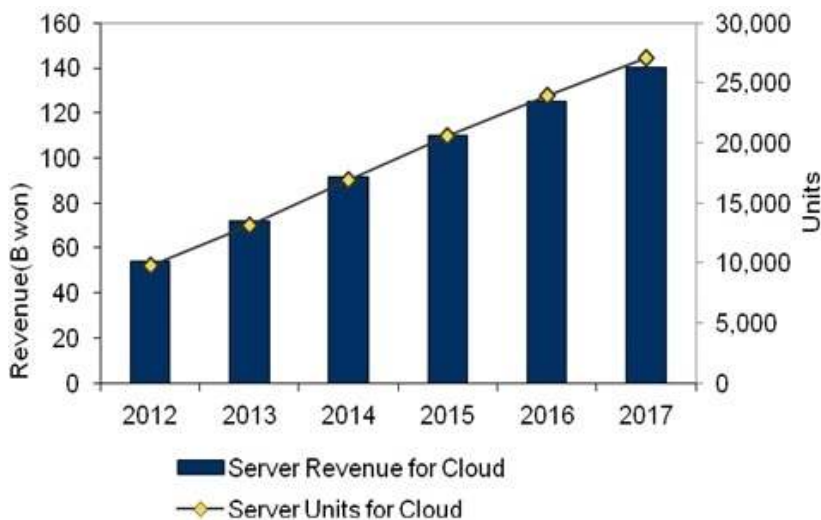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2. 8)

라. 국내 클라우드 서버 시장 전망

- 국내 클라우드 서버 시장, 2017년까지 연평균 27%의 높은 성장세 전망
 - (IDC) 국내 전체 서버 시장은 향후 5년간 연평균 1%대의 저성장이 예상되는 반면, 클라우드 서버 시장은 고성장이 예상
 - 서버 시장 매출에서 클라우드 서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5.2%에서 2016년에는 11.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도입이 증가하는 것은 경기 불황에 따른 비용절감 이슈와 IT 환경 변화 때문으로 분석
 - 기업 클라우드 수요 조사에서 조사 기업의 약 10% 정도가 현재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해 사용 중이거나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초기 단계로 인프라 서비스 중심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시장을 주도
 - 시장이 점차 성숙되고 콘텐츠가 증가됨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형태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국내 클라우드 서버 시장 매출 및 출하량 전망 (2012-2017)



자료: IDC (2013. 2. 6)

마. 국내 OS시장 점유율 동향

- 윈도우7이 출시 3년 만에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국내 운영체제 (OS) 시장 점유율 1위를 확보
 - (스탯카운터) MS의 윈도우7의 점유율(54.14%)은 2위 윈도우XP(34.53%)에 비해 20% 가량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
 - 2008년 이후 80%대의 점유율로 국내 OS시장 1위를 기록했던 윈도우XP는 보안 문제 등으로 지난 1년 동안 20%가량 점유율이 하락
 - 2014년 4월부터 MS가 윈도우XP에 대한 지원 종료를 발표함에 따라 국내 OS시장은 윈도우7으로 급속히 이동할 것으로 예상

2008년 이후 국내 OS 점유율 추이(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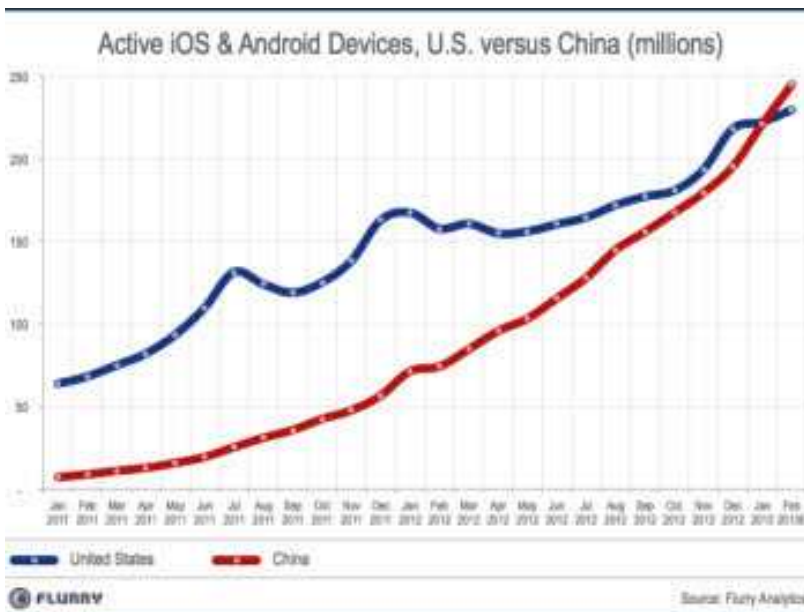


자료: 스탯카운터 (2013. 2. 27)

바. 중국 스마트폰·패드 시장 동향

- 중국,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스마트폰·스마트패드 시장으로 등극
 - (플러리) 중국 내 iOS·안드로이드OS 스마트기기가 2월 말 2억4600만 대가 판매, 세계 최대 스마트폰·스마트패드 시장이 될 것으로 예측
 - 1월까지의 2억2200만 대를 차지한 미국이 중국(2억2100만 대)을 앞섰지만 2월부터 역전
 - 중국이 세계에서 스마트폰·스마트패드가 가장 빨리 성장하는 시장이 된지 1년 만의 결과
 - 한국은 1월 기준 미국, 중국, 영국에 이어 4위를 차지

미국과 중국의 iOS와 안드로이드OS 기기 개통 추이(단위 : 백만 대)



자료: 플러리 (2013. 2. 19)

Ⅲ. 국내외 정책 동향



1. 국내

가. 지식경제부

- 2013년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계획 공고 (2013. 2. 14)
 -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Exobrain) 대형SW, 자동 차선 변경 시스템 기술 등 산업 전분야에 걸친 융합원천기술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이 진행
 - 1276억원을 지원하는 지식경제부의 대표적 중장기 R&D사업으로 신산업, 정보통신산업, 주력산업 분야에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과제별 특성에 따라 3년부터 5년까지임
 - 2013년에는 총 105개 과제로 산업별로는, 신산업 6개분야 30개 과제 374억원, 정보통신산업 13개분야 48개 과제 602억원, 주력산업 10개 분야 27개 과제 300억원을 지원
 - 602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정보통신산업 분야에는 지능진화형 엑소브레인(Exobrain, 외뇌, 인공지능 기술) SW 기술, 국제표준 (AEC-Q100)을 만족하는 자동차용 반도체 공정 및 핵심 IP, MT-Advanced TDD 무선전송 방식 지원 소형셀 기지국 시스템 등이 추진
 - 2013년도부터는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인 중소·중견기업의 지원 확대를 위해 대기업이 주관하는 과제는 고위험, 시스템형, 수요 연계형으로 국한하고 정부출연금 지원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제한하도록 함
 - 2월 15일부터 4월 5일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에 과제를 공고해 접수 받고, 4~5월 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

- '분리발주 대상 SW 고시' 개정(2013. 2. 21)
 - 공공발주기관은 SW사업 발주시 종전 사업별로 작성하던 분리발주 적용 제외사유를 품목별로 작성하여 명시해야 함
 - 분리발주 적용 제외 사유: 상용SW를 직접 생산하는 SW기업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은 총 사업규모가 10억원 이상인 공공SW사업인 경우 개별 SW가격 5천만원 이상 또는 동일 SW 다량구매 가격 5천만원

이상인 국가인증 SW(GS, 행정업무용, CC, NEP, NET 국가인증 SW 또는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SW)는 분리발주 하여야 함(SW산업 진흥법 제20조제3항)

- 또한 국가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SW제품도 분리발주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발주기관의 자발적인 분리발주 기회를 확대하였음

새로운 고시 구체내용

- ✓ 종전 임의로 작성하던 사업별 제외사유를 SW품목별로 작성 게시하도록 의무화하여 발주기관의 자의적인 분리발주 제외 적용 최소화(비고 4, 별표 신설)
- ✓ 발주기관 재량에 의한 분리발주 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비고 3)
- * ①총 사업규모 10억원 미만, ②SW가격 5천만원 미만, ③**국가인증 획득하지 않은 제품**

- 분리발주에 대한 발주기관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제도적인 틀안에서 분리발주 제외사유를 발주기관이 자의적으로 적용한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또한 기관 평가지표에 반영된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 비해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분리발주 적용률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최근 3년간 SW분리발주 적용 현황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분리발주 적용률	32.6%	45.0%	58.0%
지방자치단체	3.4%	12.5%	12.5%
제외사유 적용비율	21.4%	26.7%	30.7%

- 지식경제부는 고시 개정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분리발주 적용률 제고를 위해 2013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적절한 비율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계획임

□ 수출 제품 완성도 체크리스트' 발표 (2013. 2. 19)

- SW공학센터는 SW수출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의 관리자와 개발자를 위한 'SW수출 준비를 위한 제품 완성도 체크리스트'를 일본진출협

의체(KJIT)와 공동 개발· 발표

- 'SW수출 준비를 위한 제품의 완성도 체크리스트'는 SW수출 준비를 위한 사항을 기본준비단계, 현지화 기술, 영업 및 기술지원, 국가별 고려사항, SW공학기술로 구분
- 각 항목별 5단계 평가기준으로 자가진단을 해 수출을 준비 중인 중소 SW기업의 취약점을 도출해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구성

□ SW를 중심으로 정보기술(IT) 고급인력 양성사업을 추진 (2013. 2. 22)

- IT 고급인력 양성사업으로 지원할 대학 ITRC 5개 분야 대부분이 SW산업에 맞춰 추진
 - ITRC는 지식경제부가 고부가가치 핵심기술 개발과 프로젝트 능력을 갖춘 석·박사급 연구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육성, 지원하는 사업
 - 2013년 정부가 선정할 ITRC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SW공학, UI/UX, 홈네트워크 총 5개 센터
 - CITRC 지원 분야에는 기존 IT 자동차, IT 의료에 이어 'IT 교통'을 새롭게 추가
 - 5월까지 ITRC 선정을 마치고 6월부터 협약을 맺어 연구에 착수하는 일정이며, 선정된 지원 분야에 맞는 과제수요를 접수하는 한편 지경부 과제기획위원회의 제안 등 조율을 거쳐 결정

나. 행정안전부

□ 'SOS 국민안심 서비스'의 2년간 성과를 다룬 백서를 발간 (2013. 2. 25)

- '어린이와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위한 열정'을 부제로 2010년 9월부터의 서비스 추진과정을 수록
 -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위기상황에서 휴대폰으로 말없이 신고 하더라도 경찰이 신고자의 신원과 위치를 알고 구조해 주는 신개념 사회안전시스템

다. 방송통신위원회

□ 2012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3. 2. 22)

- 국내 민간 부문의 정보보호 현황 파악을 위해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200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 기업 부문에서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정보보호에 투자한 기업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업종별·규모별 정보보호 수준 격차도 심화
 - 개인 부문에서는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용자단말의 비밀번호 설정, 무선랜 보안조치 등 실천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조사
 -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ICT 전담조직 신설에 맞춰 2013년 4월에 수립하여 정보보호 안전망을 확충하고 국가 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할 계획

□ 스마트폰 악성코드 예방 조치 강화 (2013. 2. 26)

- 스마트폰 악성코드 감염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3년 하반기부터 국내에서 신규 출시된 모든 스마트폰에 백신을 기본적으로 자동실행 상태로 출고하도록 시행
 - 이번 조치로 인해 이용자들이 기존의 “스마트폰 10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스마트폰 자가 보안점검을 위한 “폰키퍼”를 같이 활용할 경우 스마트폰 보안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라. 문화체육관광부

□ 공공기관 SW 사용실태 점검 결과 발표 (2013. 2. 12)

- 공공기관들이 SW 사용실태를 자체 점검한 결과, 3,351개 공공기관에서 정품SW를 99.76%, 불법복제 SW를 0.24%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공공기관 SW 불법복제율 0%를 목표로 공공기관 SW관리에 관한

- 규정 이행 여부 점검을 강화하고 SW 관리자 대상 교육과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현장 방문 실사점검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 이와 더불어, 문화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민간 기업의 불법 SW 복제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수사를 진행하여, 민간 부문의 정품 SW 사용률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

□ SW 불법복제 단속 강화 및 예방활동 전개 (2013. 2.19)

- 2월 25일부터 연말까지 불법복제 SW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단속·수사 강화와 함께 2,400여 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찾아가는 SW 지킴이’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
- 기업이 자발적인 관리 노력을 통해 SW 불법복제를 예방하고 정품 SW를 사용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도활동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
-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찾아가는 SW 불법복제 예방 활동’과 함께 SW 점검 방법, 점검도구 활용법 등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SW 관리체계 컨설팅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

라. 국방부

□ 국방 부문에서 모두 2조 원가량의 국방 정보화 사업이 추진 (2013. 2. 6)

- SW 부문 사업은 10%을 차지해 모두 2000억원 규모에 달할 전망
- 2013년 전년보다 63억 원 증가한 5070억원을 국방 정보화 예산으로 책정, 이 중 SW 도입 예산인 정보체계 개발과 정보체계 유지보수 사업은 각각 256억 원과 250억 원
- 가장 많은 예산이 책정된 사업 분야는 정보통신 기반체제로 2281억 원을 배정, 정보통신망 구축 운영에 1331억 원, 운영지원에 621억 원, 정보보호에 331억 원을 사용
- 2013년 주요 사업은 해병대 전시자원산정모델 수립, 군 항공기준

- 자료관리체계 구축, 상호운용성 평가·인증체계 구축 등
- 국방통합정보관리소 인프라 구축과 웹기반 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 사업도 진행, 국방통합재정정보체계 등 110여개의 유지보수 사업과 40억 원 규모의 상용 SW도 도입도 계획

□ 국산SW 유지보수비용 현실화 (2013. 2. 7)

- 5대 전장관리체계를 군수품에서 SW 품목으로 변경하고 기존 자원정보체계와 함께 유지보수사업에 성능개선을 추가해 효율을 최고 15%까지 올렸다고 발표
- 2012년과 동일한 규모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예산도 70억 원이 늘어난 250억 원을 책정
- 5대 전장관리체계는 군에 적용한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C4I) 체계인 합동지휘통제시스템(KJCCS), 지상전술C4I시스템(ATCIS), 해군전술C4I시스템(KNCCS), 공군전술C4I시스템(AFCCS), 군사정보통합처리시스템(MIMS) 등이며 체계마다 수십개의 SW가 적용
- 그동안 5대 전장관리체계는 군수품으로 지정돼 5%의 낮은 유지보수 효율을 적용. 국방부 예산업무 지침에 군수품은 4~5%의 유지보수 효율을, SW 품목은 10~15%를 적용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
- 전장관리체계의 SW 품목 지정으로 50여개의 국산 SW기업들이 제대로 된 유지보수 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됨

2. 해외

- 오바마 2기 행정부, 경제 재건책의 핵심 방편으로 IT산업 부흥을 냄 (2013. 2. 17)
 - 미국 IT산업 부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오바마 2기의 IT 관련 현안으로는 리쇼어링(reshoring·해외 생산기지 본국 이전), 이민법 개정, 보안 강화, 국제무역 확대, 교육 강화책 등이 있음

글로벌 IT산업에 영향을 미칠 오바마 2기 행정부 주요 IT 정책

주요현안	구체적 내용	기대효과
리쇼어링	주요 제조시설의 미국으로 회귀	일자리 창출
이민법 개정	미국내 고용자와 창업가 등에 대한 비자정책 개혁	기술의 요람 역할을 통한 IT산업 부흥, 일자리 창출
자유 국제무역 강화	TPP·TTIP 통한 국제 무역 관세 철폐 등	수출 경쟁력 제고와 인터넷 산업 등 수출 제고
교육 강화	STEM 과정 강화 IP-TECH 모델의 교육 강화책 장려	기초 과학 교육 강화를 통한 차세대 IT혁신가와 기술 양성
보안 강화	사이버 대응에 대한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	공공·민간기업의 정보보안 강화를 통한 국가차원 대응력 강화

- 리쇼어링 전략과 이민법 개정은 중산층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미국을 글로벌 IT 중심 기지로 유지·성장시키기 위한 핵심 정책
- 오바마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팀 쿡 애플 CEO가 참석한 가운데 직접 애플을 언급하며 포드·인텔 등 주요 기업이 생산 공장을 되돌려 미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며 공로를 치하
- 인텔은 애리조나 반도체 공장에 50억달러(약 5조3950억원)를 투자했고 애플은 지난해 맥 PC 생산라인을 미국으로 옮기겠다고 밝혔음
- 오바마 정부의 적극적 세계 지원책에 힘입어 올해도 미국 기업의 탈(脫) 아시아 움직임은 가속화할 전망

- 미국 IT 산업계의 기대를 높이는 핵심 현안 중 하나는 이민법 개정으로 해외 고급 인재를 끌어들이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목표
- 이민법 개혁은 과학과 엔지니어링 분야 고급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비자 확대를 포함하고 있으며 구글·MS 등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음

□ 미 국방부 모바일 오피스 2014년 2월 가동 (2013. 2. 27)

-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와 애플 iOS 기기를 군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새 모바일 업무 시스템을 구축
 - '신규 상용 디바이스 기반 모바일 구축 계획'의 추진 상황을 공개하고 안드로이드OS와 iOS 기기로 무선 음성·영상·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모바일 업무 시스템을 2014년 2월부터 가동한다고 발표
 - 기기에 상관없는(device agnostic) 모바일 시스템을 가동한다는 것이 이번 결정의 핵심으로 최신 상용 기기로 빠르게 정보를 공유하고 부서 및 소속원 간 협업 속도를 높여 글로벌 미군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궁극적 목표도 세움
 - 각 단위 조직이 업무에 맞춰 원하는 단말기를 선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삼성전자 등 안드로이드OS 기반 모바일 기기를 공급하는 국내 업체도 포함
 - 미군은 약 1800대의 애플 아이패드2 구매를하기로 하는 등 시스템 가동 전까지 약 10만대의 스마트 기기를 지급할 계획
 - 보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기밀 정보를 다루는 별도의 보안시스템을 적용할 계획
 - 그 일환으로 모바일디바이스관리(MDM) 플랫폼과 자체 앱스토어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 MDM은 멀웨어 등으로부터 보호되고 원격으로 정보 삭제가 가능

□ 미국, 주요 신기술 IT프로젝트에 민간 기업가와 혁신가들을 적극 참여 시켜 높은 성과를 도모하는 대통령 산하의 '혁신 펠로우 프로그램 (Presidential Innovation Fellows Program)' 2기 전문가 모집 (2013. 2. 5)

- 이 프로그램은 2012년 5월, 5대 IT프로젝트에 참여할 전문가 모집으로

처음 시작되었으며, 2013년 2월 새롭게 추진하게 될 5대 IT프로젝트의 전문가 모집 발표

- 혁신 펠로우 프로그램의 2013년 5대 IT프로젝트
 - 재난 대응 및 복구(Disaster Response and Recovery) 기술 툴 개발 : 재난 발생 시의 경제적 피해 감소와 인명 구조를 목표로 재난 대비용 기술 툴(tool) 개발 및 사전 배치
 - 가상 물리 시스템(Cyber-Physical Systems, CPS) 개발 : 물리적인 실제 시스템과 이를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컴퓨팅 요소가 결합된 차세대 '스마트 시스템'인 CPS 개발로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기여
 - 21세기 금융 시스템(21st Century Financial Systems) 개발 : 연방 정부 산하 기관별 회계 시스템을 보다 규격화, 계량화된 비용 절감 모델로 전환
 - 혁신 툴킷(Innovation Toolkit) 개발 : 연방 정부 직원들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개발 혁신 벤처(Development Innovation Ventures) 프로젝트 : 새로운 기술의 발견 및 테스트를 통해 글로벌 문제 해결 역량 구축

□ EU, 사이버 보안 전략 및 지침 발표 (2013. 2. 7)

- EU 집행위원회(EC)는 2013년 1월 발표한 7대 우선 전략 중 외교 안보 정책을 위한 사이버보안 전략과 네트워크 및 정보 보안(NIS)에 대한 지침 발표(2013.1.10.)
- 사이버 보안 전략인 '공개, 안전, 그리고 안전한 사이버 공간'은 EU의 포괄적인 비전인 예방 및 사이버 혼란과 공격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을 포함
- 사이버 보안전략의 5가지 우선 순위
 - ① 사이버 탄력성 달성
 - ② 사이버 범죄 대폭 감소
 - ③ 공동안보방위정책(CSDP)과 관련된 개발도상국의 보안 정책 및 능력
 - ④ 사이버 보안에 대한 산업 및 기술 자원을 개발

- ⑤ 유럽 연합에 대한 일관된 국제 사이버 공간 정책을 구축하고 EU의 핵심 가치를 촉진
 - NIS(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 지침
 - 이 지침은 주요 인터넷 제공자와 중요 인프라 운영자(전자상거래, 소셜 네트워크 및 통신 사업자 등), 서비스 제공자(교통, 은행, 의료)들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회원국에게 요구

IV. SW 시장 및 기술 동향



가. 패키지 SW 시장 동향

- 국산 DBMS 업체들, 올해 국내 DB시장에서 10% 점유율을 목표로 함
 - 국산 DBMS업체들이 오라클 중심의 국내 DB 시장에서 10% 시장 점유율 달성을 목표로 뛰고 있어 주목
 - 국내 DBMS업체들은 업체별 강점을 살려 올 한해 공격적인 시장 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

국산 DBMS업계 올 매출목표·성장률

기업	강점분야	2013년 매출 목표(억 원)	성장률
알티베이스	인메모리DB	200중반	미정
티베로	디스크DB	250	100%이상
큐브리드	오픈소스	미정	50%

자료: 각 사 보도자료

□ 보안업계, 공공 통합보안 대응 분주

-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발주되는 대형 SI 프로젝트가 한 업체에 복수의 서비스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뀜
 - 최근 발주된 대형사업들은 기존 단순 보안관제 서비스 발주에서 벗어나 보안관제, 보안컨설팅, 취약점 분석, 유지보수 등까지 함께 요구
- 보안관제 업체들은 컨설턴트 조직 구성과 우수 인력 영입에 노력함
- 종합적인 보안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솔루션과 보안서비스 구매를 동시에 진행하는 대형SI 사업의 발주가 늘어나고 있음
 - 안랩, SK인포섹, SGA 등 '보안S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들이 통합보안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발주처에 알리면서 장기적으로 이런 트렌드가 시장에 안착할 전망

보안업계의 공공 SI 프로젝트 대응 방안

기업	내용
SK C&C	-총 사업규모 683억 원의 국방 메가센터(국방통합정보관리소) 사업에 SK C&C가 주사업자로 관련 보안 솔루션 업체들이 참여하지만 최소한의 업체를 참여
롯데정보통신	-제2롯데월드 건설이 투입되는 IT-보안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형SI가 앞장 서고 각각 솔루션을 별도로 보안회사에서 솔루션을 구매하는 시스템은 유사하지만 수십개에 이르는 개별 솔루션을 각각 발주하지 않고 최대한 통합적인 보안 서비스-솔루션 구매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

자료: 각 사 보도자료

□ (가트너) 국내 BI SW 시장 규모 1천9억 원으로 전망

- 국내 BI SW 시장 규모는 전년보다 3% 오른 1천9억 원으로 전망했고, 성장률은 둔화되는 추세
 - 거시 경제 지표의 부진, 대규모 BI 사업주기 둔화 등으로 성장세가 약화되면서 한자리수의 성장률 보임
 - 2011년 16% 성장률을 기록한 것에 비해, 2013년과 향후 몇 년 간은 한 자리 수 후반 대의 성장률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

나. IT서비스 시장 동향

- 중견 IT서비스기업, 공공사업 인력 채용에 실행조직 확대에 초점
 - 쌍용정보통신·KCC정보통신·현대BS&C·DB정보통신·다우기술·대우정보시스템 등 중견 IT서비스기업은 공공사업 실행인력을 많게는 250명까지 확대할 계획
 - 수행인력 중심으로 공공사업 조직을 확대하는 것은 무엇보다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
 - 개정 SW산업진흥법이 시행된 올해는 수주 확대 보다는 일부라도 대기업 없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료를 목표

중견 IT서비스기업 공공정보화 공략 방안

기업	공공SI 조직 구성	주요 공략 영역
쌍용정보통신	프로젝트 수행인력 200명	국방, 스포츠 등
KCC정보통신	기술 엔지니어 240명	대법원 등 준정부기관
현대BS&C	PM 인프라 아키텍처 등 이행인력 100명	국방, 공공의료
DB정보통신	기술본부 인력 114명	공공 SOC 정보화
다우기술	이행인력 연내 100명 확대	클라우드, 오픈소스 공공정보화

자료: 각 사 보도자료

- 중견 IT서비스 기업, 수익 중심으로 사업과 조직을 재편하는데 주력
 - 글로벌 경기침체로 그룹 계열사들의 내부 수주 물량이 줄어들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공공 정보화 시장 참여 금지되면서 중견IT 서비스 기업의 수익 모델 변화가 절실함
 - 동부CNI, 아시아나IDT, DK유엔씨, 코오롱베니트 등 중견 IT서비스 기업은 이에 따라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면서 수익성 개선과 생산성 향상 전략을 적극 추진중

IT서비스 업체 기업 비전 및 주요 추진사업

기업	비전	주요 추진 사업
동부CNI	시장점유율 1위 IT솔루션 유통 전문기업	IT솔루션 유통, 지능형빌딩시스템(IBS) 지능형교통시스템(ITS), 홈네트워크, 환경IT, 농업IT 등
아시아나IDT	일등 기업	전자태그(RFID), 전사적자원관리(ERP) 생산관리시스템(MES),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등
대우정보 시스템	지속 가능한 수익성 있는 성장	에너지관리시스템(GEMS), 인사 및 재무회계 시스템 등
DK유엔씨	IT유통을 넘어 토탈 ICT 서비스 기업으로	빅데이터 사업 진출, 컨버전스 중심으로의 사업구조 전환, 그룹 서비스 체계 혁신, 해외 사업 기반 마련 등
코오롱베니트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성공DNA 확보	헬스케어, 금융IT, 그린IT 등

자료: 각 사 보도자료

□ 그룹 계열 중소 IT서비스 기업, 대학정보화 시장 진출

- DK유엔씨, GSITM 등 그룹계열 IT서비스기업이 대외사업 강화 일환으로 대학정보화 사업에 진출
 -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 관련 사업을 늘리지는 않고 대외사업 발판용으로만 활용함

그룹 계열 중소 IT서비스기업 대학정보화 진출 현황

기업명	수주 사업	규모	소속 그룹
DK유엔씨	우석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40억 원	동국제강그룹
GSITM	수원대 차세대시스템 구축	40억 원	GS그룹
동원CNS	고려대, 건양대 차세대시스템 구축	각 50억 원	동원그룹

자료: 각 사 보도자료

□ 중견 SW기업들, 공공 정보화 시장을 적극 공략 나섬

- IT서비스 기업들의 공공 정보화 사업 참여가 제한되면서, 중견 SW 기업들이 공공 SI시장 공략에 나섬
- 중견 SW 기업들은 지금까지 쌓아 온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사업 강화에 나섬

중견 SW기업들의 공공 정보화 시장 공략 내용

기업	내용
핸디소프트	-융합 보안, 통합 모바일, 가상화 및 클라우드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공공SI 시장에 주력할 계획 -'서울시 클라우드 스토리지 및 웹오피스 시범구축' 사업자로 선정 -작년 IT서비스 사업 부문을 신설하고 현재 SI인력을 80명가량으로 늘렸고 지속적으로 인력 영입에 나섬 -쌍용정보통신 공공IT 사업 담당 출신 임원을 영입한 바 있으며 품질관리 조직, 프로젝트 관리자 등의 전문인력도 확보
다우기술	-올해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공공 SI 사업을 추진 -지난해 IT서비스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60여명까지 늘렸으며 연내 100명 이상의 조직으로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 -가상화와 클라우드, 오픈소스 기술을 요구하는 정부기관과 산하기관의 사업에 주력한다는 전략
SGA	-보안성을 검토한 SI사업을 제안하며 차별화된 접근을 시도한다는 전략을 내세움 -현재 SI 전문인력 50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인력을 보강할 예정

자료: 각 사 보도자료

다. 임베디드SW 시장 동향

□ 제조업-임베디드SW 기술매칭 추진

-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중소기업의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인천·강원 지역 중소 제조기업과 수도권 임베디드SW 중소기업 간 기술매칭을 추진
- 지식경제부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고용창출형 IMT(지능형메카트로닉스) 산업혁신클러스터 육성 사업'(이하 IMT사업)의 일환으로 'IMT융복합 기술교류회'를 개최
 - 이 행사는 기계, 자동차, 의료기기 등 주요 제조업에 핵심적으로 활용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임베디드SW 기술을 제조업에 접목, 중소기업 간 기술융합을 지원

라. 공개 SW 시장 동향

- 2012년 국내 공개SW 시장 규모가 전년대비 16.9% 성장한 284억 원으로 조사
 - ‘2012 공개SW백서’에 따르면 2012년 국내 공개SW 규모는 전년 대비 16.9% 성장한 284억 원으로 나타남
 - 2012년은 수출둔화와 경기침체로 기업 IT투자 집행이 둔화되면서 성장세가 다소 주춤
 - 공개SW 시장을 SW와 서비스로 나뉘보면 지난해 국내 공개SW의 SW시장은 116억8000만원, 서비스시장은 167억2000만원 규모로 추정

2012 공개소프트웨어백서 주요 내용

항목	내용	비고
전체 시장 규모	284억 원	SW : 116억 8000만원, 서비스 : 167억 200만원
2011년 대비 성장률	16.9%	2010년(155억 원, 전년대비 46.5% 성장), 2011년 (243억원, 전년 대비 56.8%)
성장률 둔화 이유	-지난해 하반기 수출 둔화와 경기 침체로 인한 IT투자 집행 둔화 -대규모 리눅스 서버 프로젝트 감소	
향후 전망	SW시장 성장률 주춤, 서비스 시장 증가	
예상 시장 규모	2013년 : 315억 원, 2014년 : 346억 원, 2015년 : 385억 원, 2016년 422억 원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3. 2)

마. 신사업 시장 동향

1) 모바일(Mobile)

□ 포털업계, 모바일 검색을 강화

-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등 주요 포털업체들이 주 수익모델로 부상하고 있는 모바일 검색을 강화
 -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가 모바일 시장에서 주류를 형성하고 있지만, 모바일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서비스는 웹에서와 마찬가지로 검색임
- (닐슨코리아클릭) 2012년 말 발표한 '무선인터넷 이용 실태'에 따르면 검색을 위해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하는 비율이 82.4%로, 메신저 또는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이용비율 53.5%를 제치고 가장 높음

포털업계 모바일 검색 강화 내용

기업	내용
다음 커뮤니케이션	-모바일 검색 강화를 위해 검색 개발 인력을 공개 채용 중 -검색 개발, 자연어처리/텍스트마이닝, 데이터분석/검색랭킹모델링 분야의 경력 사원을 채용할 예정 -모바일과 검색 서비스 강화를 위해 총 160명의 인원을 총원한다는 방침 -지난해 말 음성인식 전문업체 다이알로이드를 인수하고 음성 검색 강화에도 나섬 -향후 음성 검색 서비스를 다이알로이드 기술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
SK 커뮤니케이션즈	-모바일을 포함해 검색 서비스를 개편할 예정 -콘텐츠 큐레이션 기능을 적용해 이용자층에 맞춘 차별화 된 검색 결과를 제공 하는 동시에, 이용자의 사용성을 강화한다는 계획 -네이트, 싸이월드에서 유통되는 다양한 콘텐츠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스마트한 검색 제안형 서비스로의 진화를 계획
NHN	-모바일에서만 보여지는 이용자들의 독특한 검색 패턴을 모바일 검색에 적극 반영 -개인화 자동완성, 개별 키워드별 검색결과 제공, 개별 검색 공유 기능 등을 선 보임

자료: 각 사 보도자료

2) SNS(Social Network Service) & Social Media

- 기업 내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구축이 증가
 - 아직 초기 단계인 국내 기업용 SNS 시장에서 각종 서비스업, 금융권, 그룹사 등 분야에서 구축 사례 증가
 - 조직 성과를 내기 위해 협업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효율을 위해 기업 내 SNS 구축 증가
 - (가트너) 오는 2016년까지 전체 대기업의 50% 이상이 기업 내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구축할 것이라는 내용의 발표
 - 기업 내 SNS가 업무 관련 정보를 결정하는 주요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될 것이라는 분석
 - (포레스터 리서치) 전세계 기업용 SNS 시장 규모가 2016년 64억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
 - 2010년 기준 기업용 SNS 시장이 6억달러 규모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10배를 웃도는 성장

3) 검색서비스

- 국내 검색업계, '빅데이터'를 적용한 신제품 출시
 - 와이즈넷, 다이퀘스트, 코난테크놀로지 등 국내 검색업체들이 올해 IT업계 화두로 부상한 '빅데이터'를 적용한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기존 제품군을 강화
 - 최근 빅데이터가 강조됨에 따라 검색분야도 처리해야하는 데이터가 늘어나면서 신제품을 출시

검색업체, 빅데이터 제품 출시 내용

업체명	내용
와이즈넷	-주제어를 기반으로 연관된 의미를 분석하고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솔루션인 '와이즈티2.0'을 출시할 계획 -업그레이드된 2.0 버전에서는 단순한 통합 검색 수준을 벗어나 기업 내 조직간, 문서간 연결, 관계성까지 추론해 의미 있는 결과 값들을 제공 -와이즈티 외에 표절검색솔루션을 대학 등 교육기관 외에 일반 기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경 새롭게 내놓을 계획
다이퀘스트	-오는 4월경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고 모바일 기능을 강화하는 등 색인속도를 한층 높인 검색엔진 '마리너 4.0'을 출시 -상품분야에 특화된 검색엔진 '다이버 6.0'도 올 하반기에 선보임
코난테크놀로지	-올 상반기 중으로 검색, 수집, 분석 등 분야별 신제품들을 대거 출시할 방침 -빅데이터 트렌드에 맞춰 기존 제품들의 기능을 강화했으며 빅데이터 검색 이슈에 민감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영업 등을 강화할 계획

자료: 각 사 보도자료

가. 비즈니스 및 제품 동향

- (안랩) 개인정보유출 차단 기술 특허 획득
 - 유통산업 POS 및 산업용 시스템에 주로 사용되는 트러스라인 보안 솔루션에 적용된 기술이 국내 특허를 획득
 - 이번 특허 기술은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해킹 기법 중 하나인 'ARP 스푸핑'을 탐지·차단하는 것임

- (인포섹) 웹쉘 탐지 전용 솔루션 'W-실드' 출시
 - 관제서비스 사업을 통해 축적한 웹쉘(Webshell)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웹쉘 탐지 전용 솔루션인 'W-실드(Shield)'를 출시
 - 웹쉘은 공격자가 원격으로 웹 서버에 명령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해킹 프로그램으로 홈페이지 변조,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정보유출, 스팸메일 발송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힘

- (과수닷컴) DRM 클라우드 서비스 '디지털퀵' 출시
 -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지속적인 데이터 보안을 책임지는 디지털저작권 관리(DRM) 클라우드 서비스를 출시
 - 클라우드 상에서 공유되는 문서에 DRM을 적용해 문서의 유통 전 과정에 걸쳐 데이터에 대한 지속적인 보안을 제공

- (원더풀소프트) 기업용 메시징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푸시서버 솔루션 '엠비즈톡'을 개발
 - 통신사 SMS사용료를 절약하고 애플이나 구글의 메시징서비스도 거치지 않는 기업용 메시징 시스템을 구축
 - 은행, 증권, 보험, 카드사 같은 조직에서 구축시 고객을 대상으로 발송하는 통신사 대량문자 사용료를 절약 가능

- (KG모빌리언스) QR코드를 통한 엠틱 모바일결제서비스 오픈
 - QR코드 전문기업 바로페이과의 제휴를 통해 현금이 없어도 배달음식 주문 또는 오프라인 모든 매장에서 간편하게 스마트폰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픈
 - QR코드가 있는 로드샵 매장에서 QR코드를 스캔해 모바일웹 결제 페이지에서 주문금액 입력 후 결제 가능

- (아이티엠시스템) 중소기업용 지식재산 관리 솔루션 'MyGuard SMB' 출시
 - 사용자가 문서파일을 작성한 뒤 저장 버튼을 누르면, 회사가 관리하는 가상의 Z드라이브에 저장되는 보급형 솔루션 'MyGuard SMB'를 개발
 - 고비용, 전담 조직의 부재, 상대적으로 낮은 보안 의식으로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한 대비가 약한 중소기업을 대상

- (알서포트) 솔루션개발을 위한 모바일R&D센터를 설립
 - 솔루션개발을 위한 모바일R&D센터를 세우고 기반기술과 모바일 기술개발 중심 전문인력 50여명을 투입
 - 모바일R&D센터는 향후 NTT도코모 관련 프로젝트와 지원 업무를 맡고, 운영 지원 업무도 진행

- (닉스테크) 통합 보안솔루션 '원에이전트' 출시
 - 데이터유출방지(DLP) 솔루션,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보안USB관리 솔루션, 네트워크접근제어(NAC) 솔루션을 하나로 모은 '원에이전트 (One Agent)'를 출시
 - 하나의 사용자인터페이스(UI)로 다양한 제품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 업무 편의성을 높임

2013년 2월 국내 SW 주요 신제품 및 서비스 출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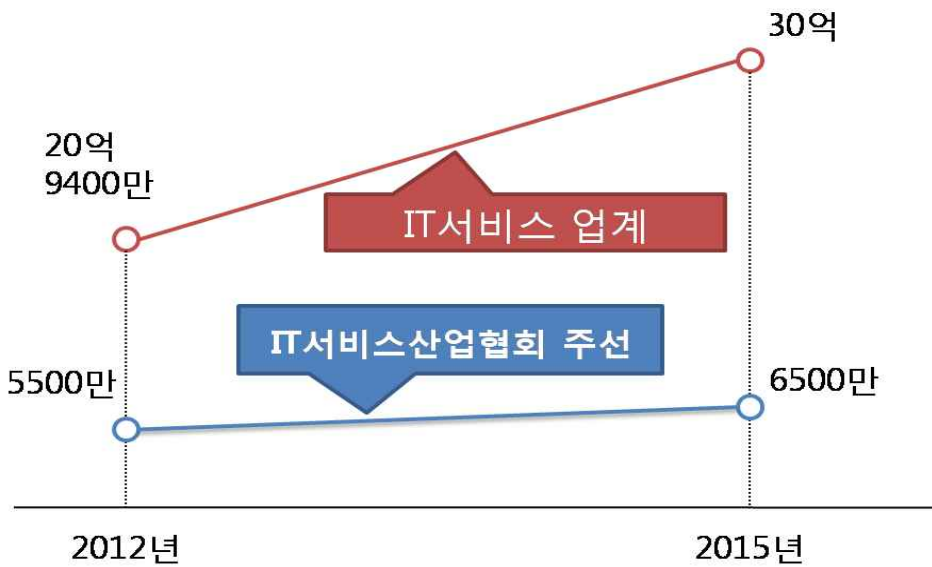
업체명	출시 제품	비즈니스 전략
인포섹	W-실드	-400여개의 웹셀 패턴 노하우와 난독화된 웹셀을 탐지하기 위한 암호해독(Decoding) 엔진을 통해 다양한 웹셀 공격에 대응할 수 있고 에이전트 설치가 필요 없어 시스템 부하를 줄이는 것이 특징
파수닷컴	디지털릭	-DRM 암호기능과 암호화된 파일에 대한 사용자별 권한 관리 기능을 제공 -디지털릭을 3개월 간 무료 베타서비스로 제공한 후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유료 서비스로 전환할 예정
원더풀소프트	엠비즈톡	-애플 푸시알림서버(APNS)나 구글 클라우드메시징(GCM)같이 모바일플랫폼 개발사가 운영체제(OS)에 기본 탑재한 메시징 서비스를 거치지 않아 주요 데이터와 로그를 기업이 직접 관리하고 통제 가능 -안드로이드와 iOS와 윈도8 등 환경을 지원하고, 문자 길이 제약이 없고 사진과 영상같은 미디어 파일도 담을 수 있음
KG모빌리언스	엠틱 모바일결제서비스	-전국 5백여 개 배달음식 가맹점과 로드샵에서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오픈하였으며, 조만간 4천여 개 가맹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
아이티엠시스템	MyGuard SMB	-자사가 보유한 지식자산 중앙화 솔루션에다 유니온NEC의 문서생애주기관리(EDM)을 결합상품으로 구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판매할 계획
닉스테크	원에이전트 (One Agent)	-다수의 보안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것보다 더 적은 자원을 사용해 동일한 보안 효과를 볼 수 있어 PC 사용에 부담을 줄임
한국CA테크놀로지스	CA IAM 스위트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사전 정의된 설정을 통해 빠른 설치와 운영을 보장
시큐브	시큐브 쉐트원 퍼스널(Secuve CERT1 Personal)	-개인의 공인인증서와 안전결제(ISP) 인증서의 유출 방지, 신뢰되지 않는 비인가 모듈 접근 차단, 동적 라이브러리와 코드 서명 검증기반의 인증서 접근 통제 및 감사 로그 제공, 인증서 접근 알람 등 보다 강화된 공인인증서 보호 기능을 제공
타이거컴퍼니	티그리스	-소셜 기반에서도 기업용 SNS 솔루션인 '마이후 엔터프라이즈(myWho Enterprise)'로 기업 내부 시스템을 통합하고 확장
지란지교소프트	메일스크린 어플라이언스	-메일스크린을 이용하면 사내에서 발신되는 메일을 사전에 필터링해 메일의 본문이나 첨부파일에 중요한 정보나 개인 정보가 있는 경우 결재권자의 승인이 있어야 메일을 발송 가능

자료: 각 사 보도자료

나. 해외 진출

- IT서비스업계, 2015년 IT서비스 수출 30억 달러 목표
 - 개정 SW산업진흥법 시행으로 국내 공공IT서비스 시장진출이 제한된 대기업이 해외진출을 가속화함
 - 지난해 20억9400달러 수출을 기록한 IT서비스 업계는 2015년에는 30억 달러 수출 목표를 세움

IT서비스 업계 수출 추이(단위: 달러)



자료: IT서비스산업협회(2013. 2)

- IT서비스 기업들, IT융복합 수익기반 모델로 전환하며 해외시장 공략
 - 정체되어 있는 국내 IT서비스 시장에서 벗어나, 성장 가능성이 높고 큰 수익이 기대되는 해외 시장을 공략
 - IT와 비IT 영역을 결합시켜 시너지를 내는 융복합 모델을 통해 해외 사업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

IT서비스 기업, IT융복합 모델로 해외 시장 공략 내용

업체명	내용
삼성SDS	-디지털 스페이스 컨버전스(DSC)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해 수천억 원 규모의 사업 수주 -DSC는 물리적 공간에 디지털기와 유무선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첨단 IT와 디자인을 적용한 융복합형 디지털 공간 구축 사업으로 건축과 건설분야에 IT를 결합한 모델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생산회사 아람코가 다란에 건설 중인 세계문화센터 DSC 사업에 참여
아시아나IDT	-말레이시아 머싱 라구나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의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 -2017년 12월까지 통신 인프라 구축과 ICT서비스 시스템 개발 사업을 수행할 예정 -데이터센터 구축과 호텔자산관리시스템(PMS) 개발, 지능형 빌딩시스템(BEMS),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구현 등이 사업범위
LG CNS	-400만달러가 투입된 500KW 규모의 스리랑카 태양광 발전소 구축 사업을 수행 -불가리아 암볼, 발친, 스코벨레보, 스몰릭 4개 지역에 4천400만 유로 규모 21.3MW급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구축 -시스템 설계부터 자재조달, 시공까지 턴키(Turn Key)로 맡아 수행한 불가리아 태양광 발전 사업에는 LG CNS가 자체 개발한 '스마트 그린 솔루션(Smart Green Solution)'이 적용
SK C&C	-세계 최대 전자결제 서비스 업체인 퍼스트데이터 코퍼레이션(FDC)에 제공된 후 구글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구글 월릿에도 적용 -전 세계 1억 1천300만 결제 계정을 보유한페이팔과도 협력해 북미지역 모바일 커머스 사업을 진행
포스코ICT	-원전사업 부문에 대한 집중 투자로 원자력발전소 정비와 원전통합계측제어 시스템(MMIS) 및 계측정비 기술의 해외 수출을 타진
한화S&C	-550억 원 규모의 리비아 신공항 청사 건축 프로젝트 실적을 바탕으로 해외 건설IT 시장을 공략

자료: 각 사 보도자료

□ SW업계 공동으로 해외 진출 추진

- 중국진출협의체 ‘인투차이나’와 동남아진출협의체 ‘시포워드’를 중심으로 중국과 베트남 진출을 위한 업체 간 협력을 진행
 - 각 국가별로 10여개 안팎의 SW기업이 연합체를 구성할 계획
 - 개별 진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모델을 만들기 위한 노력임

SW업계 해외 공동진출 개요

구분	내용
목적	-개별 진출 한계 극복하고 시너지 효과 창출, 제품 경쟁력 강화
준비현황	-SW 중국진출협의체, 동남아진출협의체 중심으로 사업모델 마련중 -중국은 엔코아, 베트남은 알티베이스가 구심점
구성	-중국과 베트남 각 국가별 SW업체 10여개 안팎으로 협의체 구성
활동시점	3월

자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2013. 2)

다. 기업 간 협력 및 제휴 동향

- 글로벌 기업과 경쟁 위해 국내 SW 기업간의 협력 증가
 - 최근 공동 수주, 공동 해외시장 개척은 물론 경쟁사간 공동 개발까지 국산 SW 기업간에 협업이 강화
 - 토털 솔루션에 대한 요구 증가 및 IT의 변화가 빨라지면서 자체 개발한 제품으로는 글로벌 기업과 경쟁이 어려움

국내 SW기업간 협력 주요 사례

업체명	내용
와이즈넷 등 10개 업체	빅데이터솔루션포럼-빅데이터 시장 공동 공략
위세아이텍 등 8개 업체	비즈니스인텔리전스포럼-빅데이터 시장 공동 공략
파수닷컴과 마크애니	차세대 엔터프라이즈 DRM 공동 개발
알티베이스와 티베로	DBMS 월드베스트소프트웨어 사업 공동 진행
날리지큐브와 온더아이티	지식관리시스템 월드베스트소프트웨어 사업 공동 진행

자료: 각 사 보도자료

라. SW 품질 동향

□ 2013년 2월 GS인증 획득 현황

2013년 2월 GS인증 획득 기업 및 제품 현황

기업명	대표자	제품명	특징
코닉글로리	조명제	아이에스 티엠에스 v1.0	유무선네트워크에 대한 탐지 및 차단을 동시에 관리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자이오넥스	유동식	티큐브 서플라이넷8.1 , 티큐브 스케줄7.0	티큐브 서플라이넷은 국내외 법인과 공장을 운영하는 제조기업이 생산계획과 물류·공급계획에 이르는 공급망 계획을 수립하는 공급망 계획 시스템 티큐브 스케줄은 생산스케줄의 전산화로 제조기업이 수요와 공급의 동기화를 시킬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함

자료: 각 사 보도자료

V. 주요 리포트



가. 「디지털 체험」 경제의 도래

- 제품의 품질과 성능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상품을 소비하는 과정에서의 즐거움이나 성취감, 즉 체험이 핵심 차별화 요소로 떠오르고 있음
 - 구글 산업의 재화 및 서비스가 단순히 소비되는 차원을 넘어 인상 깊은 체험을 연출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진화



자료: 삼성경제연구소(2013. 2)

- 스마트폰이 일상화되자 고정된 스크린의 제약을 벗어나 현실의 3차원 공간 어디서나 오감(五感)으로 상호작용하는 '전방위 디지털 체험'이 부상
 - 구글, 아마존 등 신흥 IT 강자들이 기술 발전을 먼저 수용하며 선제 공격을 가했으며, 전통기업은 오프라인 자산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IT 기업이 따라할 수 없는 현장감과 생동감을 제공하며 반격에 나서고 있음
 - 디지털 체험을 선도적으로 구현한 글로벌 전통기업들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나. 「디지털 체험」으로 재도약한 전통 강자 8選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 체험을 개선한 전통기업 사례를 분석
 - 사례기업들은 오프라인의 강점을 디지털 기술과 접목하여 자아개발,

고객확장, 감동연출, 사회공헌 등의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신사업과 신시장을 창출

전통기업의 디지털체험 대표 사례






가치	주요 내용	제조업	서비스업
 자아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증진 등 자아발전 지원 성취도 지표를 토대로 게임화 	 나이키	 웨이트워치스
 고객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험의 특성을 확장 및 고도화 새로운 고객층에게 어필 	 레고	 아멕스
 감동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명소의 혁신성을 강화 인상 깊은 체험을 연출 	 프라다	 디즈니
 사회공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 안전 등 공익에 기여 고객의 비용도 절감 	 지멘스	 프로그레시브

자료: 삼성경제연구소(2013. 2)

□ 나이키

- 세계 1위의 운동용품회사로 '운동용품'과 연계된 디지털 기기로 데이터를 추적·활용해 제품 영역을 '운동과 게임'으로 확장
- 경영전문지 『패스트컴퍼니』가 선정하는 2013년 혁신기업 1위 등극

'나이키 플러스(Nike+)' 시리즈

명칭(출시)	협력대상	내용
 + iPod (2006)	애플	운동하면서 음악을 듣고 운동량과 거리도 표시
 + GPS (러닝) (2007)	애플 안드로이드	GPS로 운동경로를 기록하고, SNS로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 Training (2011)	애플 안드로이드	유명선수의 신체 움직임을 추적해 비슷하게 운동연습할 수 있게 하는 영상교본 스마트폰 앱
 + Kinect (2012)	MS Xbox	+training 앱과 사용자 동작인식 기술을 결합한 홈피트니스
 + Present (2013)	유명 도시	'게임온월드' 캠페인 홍보를 위해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가상의 게임을 오프라인에서 시험하는 행사

자료: 삼성경제연구소(2013. 2)

□ 웨이트워처스

- 오프라인 지역모임과 모바일 앱을 결합해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데 성공
 - 모바일 앱 도입으로 온라인 매출이 2배 성장하며 연 14%의 매출 성장 견인

□ 레고

- 어린이에 국한된 고객층의 한계를 절감하고, 최신 로봇기술을 보유한 MIT 미디어랩과 협력해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디지털 로봇' 제조기업으로 변신함으로써 주 고객층을 청소년, 성인까지 확장하는 데 성공

창작 의욕을 높여주는 '레고 디지털 디자인 프로그램'

▷ 3D 블록 만들기 프로그램을 개발해 무료로 배포함으로써

레고팩토리닷컴에서 원하는 모형을 디자인하도록 지원

- 다운로드받은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다양한 팔레트를 활용해 자신만의 모형을 온라인상에서 창조 가능
- 고객 상상력을 동원해 가상의 블록으로 자신이 만든 레고 모형을 웹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세계 레고 고객과 공유
- 온라인에서 고객이 스스로 완성한 모형을 주문하면 배송도 가능

자료: 레고 홈페이지 <www.lego.com>



□ 아멕스

- VIP 마케팅의 편의 및 체험 서비스를 디지털 기술과 접목해 일반 소비층 대상의 매스 마케팅으로 확대했으며, 중소기업 대상의 '스몰 비즈니스 새터데이' 캠페인 등 소셜미디어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결과 매출이 2년 만에 55% 증가
 - VIP 고객 외에도 일반 고객, 중소기업 등 폭넓은 고객층을 확보

□ 프라다

- '인터랙티브 드레스룸' 등 디지털 기술을 가미한 혁신적인 신개념 스토어와 고풍스러운 갤러리 콘셉트의 온라인 사이트를 연출함으로써

오감이 즐거운 쇼핑체험을 구현하는 데 성공

- 뉴욕, 도쿄 등에 입점한 신개념 스토어는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 월트디즈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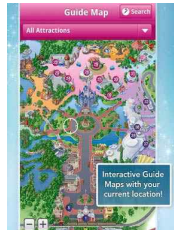
- '개인 맞춤형 관광가이드' 역할을 수행하는 모바일 앱과 전자 손목 밴드를 활용해 테마파크의 즐서기 불편을 해소하고 환상체험을 극대
- 디즈니 캐릭터를 활용한 게임이 인기를 끄는 등 온·오프라인 전방위에서 디지털 체험을 확대
- 페이스북 브랜드 페이지의 팬 수가 2013년 2월 4,200만명으로 세계 2위

<디즈니랜드>의 다채로운 디지털 체험

- ▷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통해 고객 밀착형 테마파크 서비스를 구현
- 마이 매직 플러스(My Magic+): 고객정보가 내장된 '전자밴드'로 출입·결제 가능하고, 캐릭터에게 다가가면 고객의 이름을 불러주는 등 각종 이벤트를 선사
 - 디즈니 모바일 매직 앱: 모바일 앱이 GPS와 연동된 지도를 통해 가까운 놀이기구의 대기시간과 각종 이벤트의 장소·시간을 알려주며, 대기하는 동안 즐길 수 있는 게임과 동영상을 제공하는 한편, 공원 내 식당 메뉴 확인과 예약도 가능
 - 키넥트 디즈니랜드 어드벤처: 자신의 동작을 영상으로 인식하는 게임으로 가상의 디즈니랜드에서 온몸으로 각종 모험과 놀이를 체험



마이매직 플러스 디즈니



모바일 매직 앱



키넥트 디즈니랜드 어드벤처

자료: 디즈니랜드 홈페이지; 구글 플레이 홈페이지; MS 엑스박스 홈페이지

□ 지멘스

- 전기·전자기기 제조기술과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일반 주택 및 매장의 에너지와 탄소배출량을 최대 50%까지 절감
- 소비자 의 에너지 절약 습관 형성에도 기여하고 있음

□ 프로그레시브

- 모바일 기기로 운전행태를 진단해 최대 30%까지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자동차보험을 출시해 안전운전을 유도 하고 우량고객을 유치하는 데 성공
 - 그 과정에서 중개사의 대면 설득이 주효했으며 출시 이듬해 10억 달러 이상의 판매를 달성

다. 「디지털 체험」 경쟁력이 미래 산업판도를 좌우하는 지름길

□ 한국기업은 제품 위주의 경쟁력에 안주할 경우 그동안 쌓은 위상이 후퇴할 수 있는 중대한 갈림길에 직면

- 디지털 체험 경쟁에서는 고객을 어떻게 체험에 몰입시킬 것인가가 관건
 - 따라서 기술, 예술, 운영방식, 스토리텔링 등 4대 핵심분야에서 차별화된 기술, 오감 자극, 자발적 참여 촉진, 의미 부여 등 다각적으로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 또한 그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개인정보 오·남용, 준법 위반, 도덕적 비난 등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예방해야 함
 - 한국기업이 보유한 오프라인 자산과 디지털 역량을 결합하고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확립한다면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성과를 달성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임

디지털 체험으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



자료: 삼성경제연구소(2013. 2)

가. 스마트 커머스의 의미 및 특징

1. 스마트 커머스 정의 및 등장배경

- 스마트 커머스(Smart Commerce)란 다양한 스마트 기기의 등장과 무선 인터넷의 확산, 각종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커머스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음
 - 모바일 및 소셜 플랫폼 생태계는 혁신적인 스마트 커머스 시장을 확산시키는데 기여

Commerce 2.0에서 Commerce 3.0으로의 변화



자료: KT경제경영연구소(2013. 2)

- 스마트 기기를 통한 인터넷 이용의 대중화,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은 커머스 서비스를 확장시키는 계기를 마련
 - 이동 중에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인터넷과 어플리케이션의 이용이 가능해지고, 위치정보에 기반한 서비스가 개발되면서 온오프라인

쇼핑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양상을 보이며, 이러한 모바일 단말기의 특징을 반영한 커머스 서비스들이 등장하기 시작

2. 스마트 커머스 현황

- 모바일 커머스(M-Commerce)란 스마트폰, 개인 정보 단말기, 기타 이동전화 등을 이용한 은행 업무, 지불 업무, 티켓 업무와 같은 서비스를 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유통업체들에게 새로운 블루오션이며, 무궁무진한 수익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휴대전화, 스마트폰, PDA, 태블릿PC와 같은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단말기의 확대와 이동통신 기술을 이용한 무선 인터넷의 발전은 모바일 쇼핑시장이 급성장하는 계기가 됨

국내 M-Commerce 시장 규모 및 전망(단위: 억 원)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T경제경영연구소 재인용(2013. 2)

- 소셜 커머스(Social Commerce)는 기존의 전자상거래가 소셜 미디어와 결합한 관계 기반의 전자상거래라고 볼 수 있음
 - 소셜 미디어와의 결합은 실시간성과 확산성을 지니며, 상거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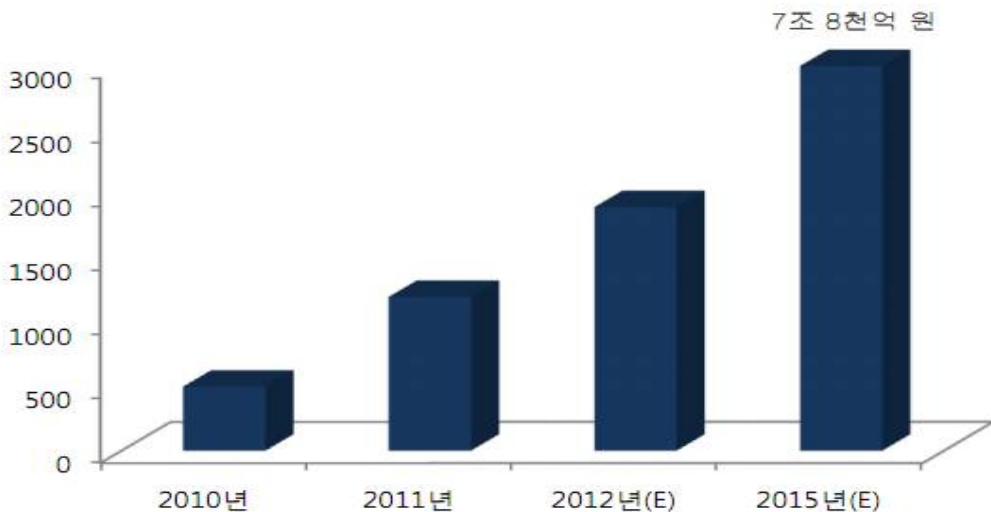
이루어지는 공간이 e-Commerce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소셜 미디어를 연결고리로 하여 소셜 웹으로 확장된다는 특징을 가짐

- 소비자의 인맥과 입소문을 활용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람이 모이면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음

□ T-커머스(Commerce)란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디지털 TV를 기반으로 리모컨 등을 활용하여 상품정보 검색, 구매, 결제 등의 상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

- 드라마, 영화, 예능 등 콘텐츠와 연계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새로운 상거래 방식으로 연동형 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음
 - 소비자가 드라마를 시청하다 드라마 속 주인공이 착용한 의상이나 가방이 마음에 든다면 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
 - 디지털케이블TV 및 IPTV, 위성방송 등의 가입자 증가로 인프라 환경이 갖춰지고 있으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TV라는 접근성과 편리성을 고려할 때 T-Commerce는 향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

T-Commerce 시장 전망(단위: 억 원)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KT경제경영연구소 재인용(2013. 2)

- F-커머스(F-Commerce)는 페이스북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의미하는 신조어로 해외에서는 이미 기존의 온라인쇼핑몰과는 차별되는 새로운 유통채널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홍보와 팬 관리는 물론 쇼핑몰을 만들어 상품을 판매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신개념임
 - 페이스북은 다른 SNS와는 다르게 소셜네트워크를 플랫폼(Platform)화하고 인맥관리와 소통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는 페이지(Page) 기능을 추가

- 서브스크립션 커머스(Subscription Commerce)는 월간지 구독 서비스처럼 구매자가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선정한 샘플 또는 상품을 서비스 제공업체가 모아 정기적으로 배달해 주는 상거래 방식을 의미
 - 서브스크립션 커머스(Subscription Commerce) 업체들은 정기고객을 확보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안정적 이익구조를 창출할 수 있으며, 기존의 오픈마켓과 달리 불 특정 다수의 제품을 취급하는 것이 아닌 특화된 제품을 통한 타겟 마케팅이 가능함

- 린스토어 커머스(Lin-Store Commerce)란 'Location+Loyalty+In Store Mobile Commerce'의 합성어로, 스마트폰으로 지역기반의 쇼핑정보 및 각종 딜이나 쿠폰을 제공하여 소비자의 방문을 유도하고 오프라인 스토어에서는 상거래 활동 및 로열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바일 커머스 환경을 지칭

3. 스마트 커머스 특징

- 스마트 커머스의 가장 큰 특징은 스마트 기기와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개인화 및 즉시성에 의한 실시간 쇼핑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임
 - 소비자는 스마트 커머스를 통해 저렴하고 즐거운 소비와 편리하고 안전한 소비 니즈를 확산
 - 판매자는 스마트 기기라는 특성에 맞는 가치 제공을 위해 상품 정보, 판매, 결제, 고객 관리 등 서비스 개발로 다양한 쇼핑 경험이라는 가치를 제공
 - 유통업체의 경우 오프라인 매장과 스마트 기기의 플랫폼, 앱스토어 등을 연계한 유통 구조의 변화로 시장 확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음

기존 커머스와 스마트 커머스의 차이점

	기존 커머스	스마트 커머스
Contents	웹	애플리케이션(AR, QR코드 등)
Platform	이동 통신사 중심의 폐쇄형	오픈 플랫폼, 앱스토어
Network Price	종량제에 따른 비싼 요금	3G 정액제
Terminal	피쳐폰, 작은 화면, 불편한 UI	스마트폰, 터치 스크린, GPS

자료: KT경제경영연구소(2013. 2)

나. 스마트 커머스와 소비자

1. 소비 트렌드의 변화

- SNS기반의 스마트 쇼핑 확산, 1인 인터넷 기업 등 신개념 소비 트렌드가 나타남
 - 사업경계와 영역에 대한 제한이 사라지면서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손 안의 작은 Market'을 통한 '움직이는 틈새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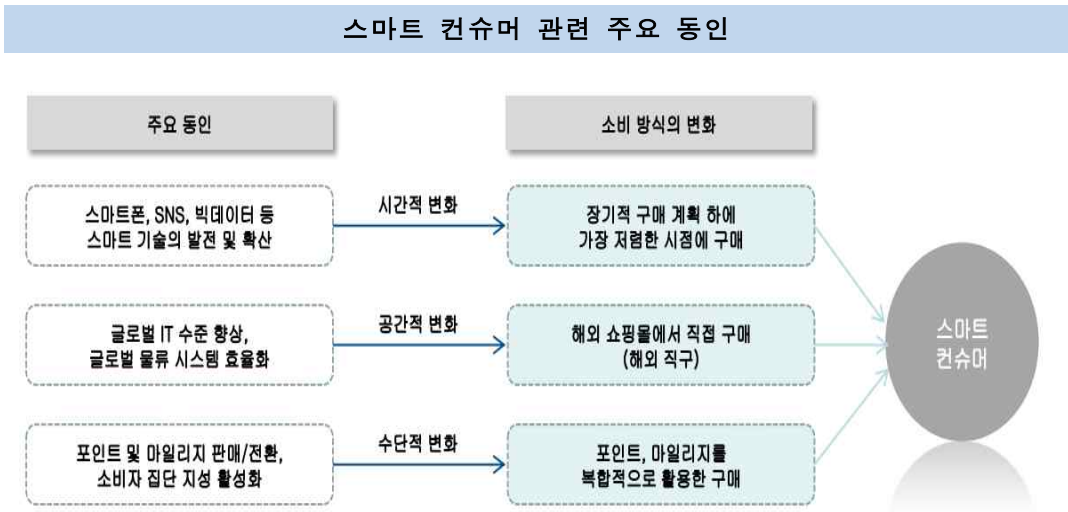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 KT경제경영연구소 재인용(2013. 2)

- 소비자들은 일상 생활은 물론 소비 생활에서도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출하며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음

2. 스마트 컨슈머의 특징

- 스마트 컨슈머의 등장을 이끈 주요 동인인 스마트 기술의 발전 및 확산, 글로벌 IT 수준의 향상, 소비자 집단 지성의 활성화 등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임
 - 스마트폰, 소셜 미디어 등의 스마트 기술이 더욱 발전함에 따라 스마트 컨슈머들은 다양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취합
 - 빅데이터 등 정보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원하는 것을 선별하는 것이 더욱 편리



자료: KT경제경영연구소(2013. 2)

- 스마트 컨슈머들은 마케팅에 참여, 사회 이슈에 민감, 스타일 주도적인 특성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들은 신프로슈머, 소셜슈머, 크레이슈머로 불림
 - '신프로슈머'는 기존 'Do It Yourself' 수준의 프로슈머에서 진화하여 마케팅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성과를 창출하는 능동적 소비자임
 - '소셜슈머'는 소비자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혜택을 위해 의견을 개진하고 관철시키는 사회 활동가로서의 소비자

- ‘큐레이슈머’는 상품을 수동적으로 소비하지 않고 자신의 스타일을 주도적으로 창출하여 원래 상품의 용도와 전혀 다르게 사용하거나, 기업에게 자신이 원하는 상품 사양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소비자
- 온/오프라인으로 정보를 탐색한 후 구매는 온라인으로 하는 ‘쇼루밍족’은 스마트한 소비자의 욕심이 반영된 트렌드라고 볼 수 있음
 - 쇼루밍족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의 장점을 모두 향유하려는 소비자의 선택으로, 제품의 품질에 대한 확신도 갖고 있고 가능한 한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고 싶은 스마트한 소비자

3. 스마트 컨슈머의 쇼핑형태

- 스마트 컨슈머가 가장 대표적으로 보이는 쇼핑행태는 가장 저렴한 시점에 구매를 한다는 것임
 - 가격의 변동성은 스마트화, 모바일화, 소셜화로 인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가격 변화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소비자가 바로 스마트 컨슈머임
- 또 다른 특징은 국경을 넘어드는 소비를 한다는 점으로, 스마트 컨슈머들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의 인터넷 쇼핑몰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임
- 또한 스마트 컨슈머들은 여러가지 결제 수단을 복합적으로 이용하고, 수많은 프로모션에 맞는 결제방법을 찾아냄
 - 스마트 컨슈머들 사이에서 커뮤니티, 소셜 네트워크 등을 이용한 집단 지성이 활성화되었다는 것을 의미

다. 스마트 커머스 비즈니스 모델

-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할인 혜택 또는 선지불 금액을 상환 받을 수 있는 전자티켓인 '모바일 쿠폰'은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프로모션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음
 - 스마트폰의 즉시성과 맞춤형 정보제공,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즉각적인 연계 등의 많은 장점을 지님

- 스마트 기기, 특히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모바일 지갑 사업이 부상하고 있음
 - 스마트폰의 통합 금융결제 플랫폼인 '모바일 지갑'은 쿠폰과 신용카드, 멤버십카드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에 보관하는 기본 기능에 지불 앱을 더한 방식으로 구성
 - 구글,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팔 등이 모바일 지갑을 통한 결제 시장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공략 중

- 소셜 커머스는 데스크탑PC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공동구매 방식에서 탈피해 모바일로 확장되고 있음
 - 모바일 소셜 쇼핑이 빠르게 진화하는 것은 지역 음식점 등을 기반으로 한 소셜 커머스를 이용하려면 데스크톱 PC보다는 실시간으로 지도와 정보 검색이 가능한 모바일 환경이 더 편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소셜커머스의 일종인 '퍼체이스 셰어링(Purchase-Sharing)'은 사업자에게는 마케팅의 수단을 제공, 소비자에게는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는 비즈니스 모델임
 - 사업자가 구매한 소비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함으로써 단골고객 유치를 가능하게 하고, 더 나아가 포인트를 얻은 소비자가 친구나 가족들에게 입소문을 내는 마케팅 효과를 기대하게 됨

라. 스마트 커머스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

- NFC(Near Field Communication)란 약 10cm 이내의 근거리에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비접촉식 무선통신 기술로 스마트폰 등에 내장되어 교통카드, 신용카드, 멤버십카드, 쿠폰, 신분증 등의 역할을 대체
 - 최근 구글,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이 스마트폰 시장에 이어 차기 핵심 사업으로 NFC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임



자료: NFC 포럼, KT경제경영연구소 재인용(2013. 2)

-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NFC 기술은 산업 전반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변혁을 예고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플랫폼 사업자 및 단말기 제조사 등 다양한 사업주체로 확산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부터 'Grand NFC Korea Alliance'라는 NFC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스마트 모바일 결제 서비스 인프라 구축 및 응용서비스 모델 발굴, 관리, 기술 지원 등이 전국에 추진됨

마. 스마트 커머스의 향후 전망

- 2012년 모바일 웹의 성장 사이트 Top10에 전자상거래 사이트가 4개 차지,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커머스 확장이 활발한 것으로 보임
 - 위메이크프라이스, GS숍, CJ몰 등의 쇼핑몰 외에도 뽐뿌와 같은 가격비교 사이트의 성장세는 직접적인 구매뿐만 아니라 그 이전 단계인 정보 탐색에서도 모바일의 활동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임

- 스마트 단말의 보급 증가로 온라인 유통 구매 패러다임이 데스크탑 PC, 인터넷 PC에서 모바일 기기, 모바일앱으로 옮겨지고 있음
 - 모바일 쇼핑앱은 오픈마켓, 소셜커머스를 비롯해 대형마트, 백화점 등 주요 유통업체에서 대부분 출시하였으며 이용자수의 증가는 모바일 쇼핑으로의 이동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스마트 커머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쏟아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단말기 이용자 증가에 있으며, Ericsson에 따르면 저가 스마트폰의 보급과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단말기의 확대로 2018년 전 세계 모바일 서비스 가입자 수가 93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기도 함

VI. 월간 SW 이슈 분석



가. 3D 프린팅 기술

- 3D프린팅은 컴퓨터 디자인 프로그램으로 만든 설계도를 바탕으로 실물의 입체 모양 그대로 찍어내는 기술
 - 어떤 제품 아이디어든 설계도만 있으면 플라스틱은 물론 고무·금속·세라믹 등 150여개 소재로 1시간~하루 안에 실물로 만들 수 있음
 - 계란 크기 물체는 45분, 300mL짜리 캔 크기는 4시간이 각기 소요, 최대 가로세로 1m 크기의 제품을 만드는 기술까지 나왔음
- 3D프린팅 기술 글로벌 제조업의 총아(寵兒)로 부상
 - 2012년 세계경제포럼(WEF)은 '떠오르는 10대 기술'의 두 번째로 3D 프린터를 꼽음
 - 3D프린터는 의류와 하늘을 나는 무인(無人)비행기에 이어 최근에는 인간 배아 줄기세포 복제와 바이오 프린팅(Bio printing)까지 성공
 - 3년 전까지는 로봇 팔·자동차 엔진부품·치아 임플란트·보청기·보석 등 소형 시제품 생산에 주로 사용됐으나 최근 자동차·항공기 부품·의료기기 같은 대형 제품 제조로 진전
 - 미국 GE는 작년 3D전문 기업인 모리스테크놀로지 등 2개 기업을 인수하고 별도 연구센터를 세워 2020년까지 10만 종류의제트엔진 관련 부품을 3D프린터로 생산하기로 확정
 - 보잉은 3D프린터로 군용기·여객기의 2만2000여개의 부품을 만들어 공급

나. 3D 프린팅이 주목받는 이유

- 재료가 가볍고, 필요한 소량만 낭비 없이 맞춤 생산할 수 있고, 제품 출시가 획기적으로 빠르기 때문

3D 프린터를 활용한 제품제작과정 및 제조 제품



자료: 조선일보, 1. 합성고무 등을 이용해 만든 머리 빗, 2. 폴리프로필렌과 플라스틱으로 만든 의료·해부학실습용 발 모형, 3. 네덜란드 디자이너 아이리스 반 헤르펜이 플라스틱 등 여러 재료를 혼합해 만들어 지난달 파리 패션위크에 선보인 드레스. 모두 3D 프린터를 통해 제조된 것들

- 글로벌 항공 기업인 EADS(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는 최근 3D프린팅 기술로 에어버스 항공기에서 연간 연료낭비를 3000kg 절감
 - 티타늄 원재료의 10%만 사용하는 분쇄 가루를 이용해 3D프린터로 필요한 부품만 생산했기 때문

다. 3D 프린터가 제조업에 불러올 변화

□ 기업들의 혁신 가속화

- 시간·비용을 대폭 줄여 혁신 속도가 수십 배 빨라질 수 있음
 - 한국 지사에서 미국 본부에 설계 파일을 보내주고, 본부에서 그 파일로 제품을 3D프린터로 찍어낸 뒤 그것으로 지사와 화상회의를 통해

디자인과 제품 생산까지 결정하면, 10~20분 안에도 결정이 가능

□ 글로벌 물류 산업의 변화

- 맞춤형 제품이 대세가 되면 대량 생산·납품 관행과 '대규모 재고관리'가 사라질 것임

□ 제조-도매-소매업의 관계 붕괴

- 제조업자가 소비자와 직접 소통해 제품을 집에 배달하면, 제조-도매-소매업이란 삼자(三者) 관계가 붕괴
 - 신흥국의 저임금 아웃소싱 매력이 줄면서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국가별 제조업 혁신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임

□ 산업 외에도 학생들에게 창의력과 혁신을 불어넣는 교육 수단이라는 점에서 주목

- MIT·하버드 등 세계 수백개 대학이 3D프린팅 기술을 연구하고 있고 MIT는 팝랩(PopFab)이라는 손으로 들고 다니는 서류가방에 들어갈 작은 3D프린터까지 개발
- 네바다주립대는 미국 최초로 지난해 3D프린터로 실험하는 3층짜리 실험실과 제품 전시실을 만들어 공과대학생은 물론 모든 학생과 지역 주민에게 개방
- 버지니아공대는 초·중·고 학생을 3D프린터로 공부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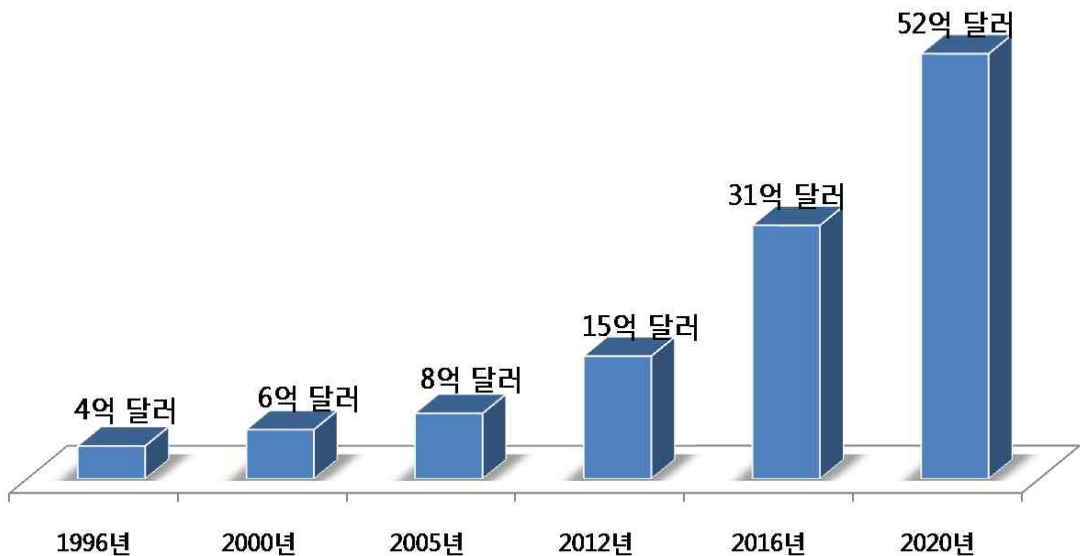
라. 최근 3D 프린팅 산업 동향

□ 3D프린팅 시장은 지난해 15억 달러에서 2020년 52억 달러로, 3배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 2년 전부터 벤처캐피털들의 지원이 급증, 3D프린터 전문 기업이 40여개 설립

- 전 세계 3D프린터 기업은 100여개사이며, 매년 5000여개 기업·교육 기관 등이 3D프린터를 구입
- 가격도 가정용은 최저 400달러까지 낮아져 시장 확대
- 셰이프웨이(Shapeway)라는 3D프린팅 기업은 25만명 회원을 상대로 웹사이트에 디자인을 고르게 한 다음, 원하는 디자인을 3D프린터로 복제해 배달해주는 서비스 제공, 1만개가 넘는 제품을 서비스
- 보급형 3D프린터 판매량은 2007년 66대에서 2011년 2만3000대로 증가했으며, '3D프린터를 이용한 '1인 제조업' 시대가 열리고 있음

3D 프린터 글로벌 시장 규모 (단위: 억 달러)



자료: 3D프린팅 리서치 기관, 줄리어소시에이즈

마. 각국의 3D 프린팅 산업 육성 정책

- 미국, 오바마 연두교서를 통한 육성 의지 발표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월 12일 연방의회에서 한 연두교서 국정 연설에서 "제조업 혁명이 미국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만드는 3D프린팅을 육성하겠다"고 선언

- 미 행정부는 7000만달러를 들여 작년 8월 오하이오주에 3D프린팅 연구개발기관(NDIM)을 세웠고 미국 전역에 3D R&D센터를 15개 만들기로 발표

□ 영국,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

- 3D프린팅 기술 육성을 위해 작년 10월 700만파운드 투자를 발표

□ 중국, 기업·교육기관 10곳 주도로 '3D프린터 기술연맹'을 결성

- 베이징타이얼푸더(北京泰福德科技發展)는 2011년에 3D 프린터를 3000대 팔아 세계시장의 4%를 차지
- 독자 기술을 확보한 중국 기업만 4곳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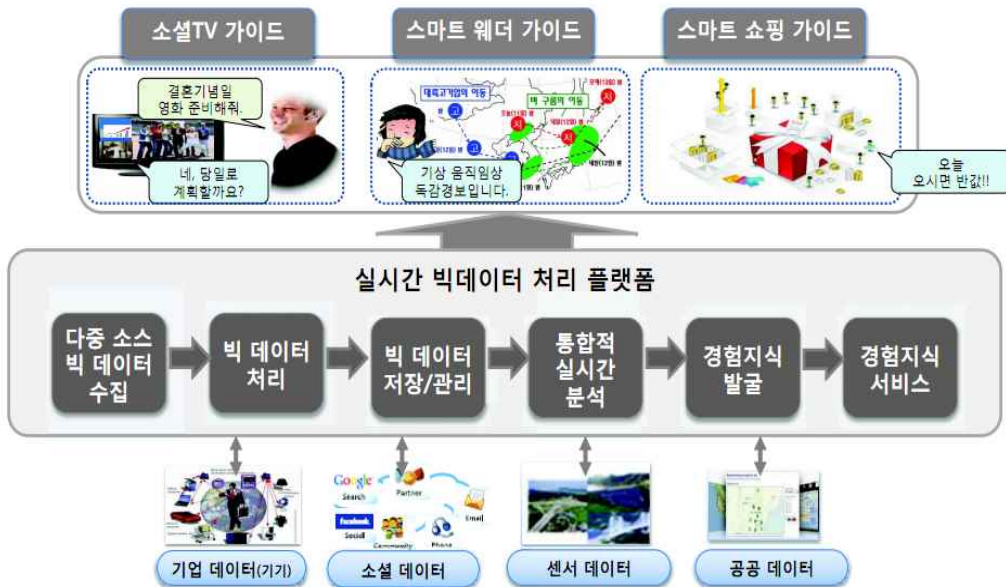
□ 유럽연합(EU), 중장기 지원 시작

- 2020년까지 제조업을 GDP의 20% 수준(현재 16%)으로 높인다는 목표 아래 지난해부터 유럽 최대 응용과학 기술 연구 기관인 프라운호퍼(Fraunhofer) 연구소에서 3D 프린터 연구개발 지원을 시작

가. 소셜 분석의 개요

- 소셜 분석이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이른바 SNS 상에서 사람들이 표출하는 의견과 생각들을 분석해 일정 패턴과 의미를 찾아내는 것
 - 최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과 스마트 기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활용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
 - 매일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데이터 등이 기업 마케팅에 있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기 때문
 - 각종 센서와 인터넷의 발달로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의 생성·수집·분석·표현이 가능해지면서 현대 사회를 더욱 정확하게 예측하여 효율적으로 관리가 필요

소셜분석의 비즈니스 모델 예시



자료: ETRI, KT경제경영연구소 재인용(2013. 2)

- 가트너, IDC 등 시장조사기관은 한결같이 소셜 분석을 미래의 유망 분야로 보고 있음
 - (가트너) ‘2013년 주요 산업 예측 보고서’에서 주목할 키워드로 ‘소셜 미디어,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클라우드 컴퓨팅’ 등 세 가지를 꼽음
 - (IDC) ‘2013년 10대 예측’을 발표하면서 제3의 플랫폼이 탐색기를 넘어 본격적인 성장 체제로 들어서게 될 것이란 예측
 - 제3의 플랫폼은 모바일, 클라우드, 소셜 네트워킹,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토대로 하는 새로운 IT

- 소셜 분석이 각광받는 이유는 여론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임
 - 수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형성하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말하고 있는 SNS는 의미가 분명하게 파악되고, 정확하게 분석된다면 비용효율적으로 여론을 알 수 있는 방법

나. 소셜 분석 시장의 기업 동향

- IBM, SAS, 오라클, 마이크로스트레티지 등의 글로벌 기업은 물론 그루터, 다음소프트, 다이퀘스트, 데이터스트림즈, 사이람, 솔트룩스, 와이즈넷, 코난테크놀로지 등 수많은 국내 기업이 소셜 분석 시장에 나섬
 - 현재 다수의 국내외 기업이 소셜 분석에 나서고, 이 과정에서 자연어 처리, 시멘틱 검색, 감성 분석, 형태소 분석 등 저마다의 분석 기술을 내세움

- 방법론은 제각각이지만, 제공 형태로 나뉘보면, 이러한 소셜 분석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음
 - 트위터상의 트윗이나 페이스북 메시지 등 소비자 대상의 SNS에서 정보를 모아 기업 마케팅 수단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분석해 제공하는 서비스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소셜 분석의 모습
 - 마이크로스트레티지의 ‘위즈덤’을 비롯해 코난테크놀로지의 ‘펠스 K’, 그루터의 ‘씨날’, 사이람의 ‘소피언’, 다이퀘스트 ‘브람스’ 등이

여기에 속함

- 서비스로 제공되는 점이 특징이고, 도입시 별도 HW나 SW 인프라를 설치, 구성할 필요가 없이 유료 계정을 마련하고, 웹이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접속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음
- 다른 하나는 BI 등 기존 기업 애플리케이션과 결합하는 방식
 - 오라클 '소셜관계관리(SRM) 스위트', IBM의 'IBM 커넥션 4'와 'IBM 스마트클라우드 포 소셜 비즈니스' 등이 여기에 속함
 - BI 애플리케이션 등 기존 기업이 구축 활용하던 솔루션과 연계가 어려운 반면, 이들은 소셜 분석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애플리케이션과 결합시켜 사용할 수 있게 한 특징

소셜 분석 업체별 서비스(솔루션) 특징

업체	분야	제품(서비스)명	특징
SAS	BI	SAS 소셜 미디어 분석	-기업평판 및 긍부정 분석
		SAS 소셜 네트워크 분석	-사기 행위 사전 감지·근절0
SK텔레콤	통신	스마트 인사이트 2.0	-주요키워드/긍부정 척도/여론주도자/경쟁 상품 비교 분석
그루터	빅데이터	씨날	-빅데이터 분석 전문 기업으로 성과 측정에 필요한 쉬운 지표와 그래프를 제공
다이퀘스트	검색엔진	브람스	-입소문 실시간 분석과 모니터링
데이터스트림즈	BI	소셜 클라우드	-소셜 분석하여 현행 이미지 및 추이분석 등을 제공
		소셜 큐브	-공공 기관 및 기업에서 관리하는 비정형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전략 및 의사결정 보안
SM2네트웍스	소셜 분석	래디안6	-포춘 500대 기업 55%가 사용하는 글로벌 분석 플랫폼
MSTR	BI	위즈덤 프로페셔널	-페이스북 데이터를 활용한 팬페이지 소비자 분석

사이람	소셜 네트워크 분석	넷마이너	-데이터 변환 네트워크 분석, 통계분석, 네트워크 시각화
솔트룩스	검색엔진	트루스토리	-텍스트 분석과 시맨틱 온톨로지 분석 융합으로 빅데이터 플랫폼 제공
와이즈넷	검색엔진	버즈인사이트	-모든 분석 대상에 적용 가능한 데이터 마이닝 서비스
코난테크놀로지	검색엔진	펄스-K	-언급량, 호감도, 관련 키워드 및 영향력자 분석

자료: 각 사 보도자료

다. 소셜 분석 시장의 한계 및 활용

- SNS가 꾸준히 각광받고 있고, 협업 효율 향상 등을 노리면서 기업의 소셜 플랫폼 도입도 활성화된다는 전망은 소셜 분석을 이끄는 힘임
 - 가트너가 하이프사이클에서 지적했듯 소셜 분석의 기대치는 기술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상황임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

- 소셜 분석이 정량화의 유혹에서 벗어나 '분석'의 결과다운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메시지 안의 의미를 정보로 치환해 내는 텍스트 분석과 오피니언 마이닝이 필수적
 - 하지만 현재 기술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만족할만한 수준의 분석 결과를 얻기가 어려움

- SNS 기반의 소셜 분석이 현실 여론을 100% 반영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참여해 활발한 의견개진이 이뤄져야 함
 - SNS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터넷 소외계층이 존재하며, 또 SNS에서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하는 사용자와 그렇지 않은 사용자가 나뉘짐
 - 이러한 측면에서 SNS 분석, 나아가 소셜 분석이 지니는 한계는 분명히 존재

- 소셜 분석은 다양한 사용자의 의견을 쉽게 파악하고, 반응을 살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를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얻거나 실패의 위험을 줄이는 데 유용하게 사용 가능
 - 이런 이점때문에 기업에서는 어떤 부문에 SNS 분석을 활용해 참고 사례로 삼을지, 소셜 분석에 대해 도출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갖고 이에 대한 역량을 축적이 필요

- 소셜 분석은 출발점에 서 있기에 잠재력도 무궁무진하다고 평가되고, 시장 성장의 잠재력 뿐 아니라 기술적 발전의 여지도 충분
 - 마케팅 측면에서의 활용 외에도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 기업의 혁신을 이끌 수 있는 획기적 방안 마련에도 활용
 - 향후에는 소셜 미디어 데이터 수집의 범위가 트위터, 페이스북을 넘어 블로그, 카페,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로 확대되면서 종합적인 통찰력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발전
 - 현재의 기초 통계, 키워드 나열 등 묘사적 수준의 정보에서 벗어나 핵심적인 성과 지표의 개발과 개별 소셜 미디어의 특성을 반영한 분석이 가능할 때 정말 가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